

“14년전 기쁨... 올해 한번 더 느껴야죠”

전국체전 안방 우승 노리는 조선대 하키부

스포츠 포커스



하나, 둘, 셋, 넷!

젊은 청년들의 뜨거운 학성이 겨울 새벽 친공기를 후끈 닦힌다. 지난 5일 새벽 6시, 조선대학교 대운동장, 20명의 조선대학교 하키부 선수들이 우렁찬 구호와 함께 축구장트랙을 돌며 지역력 향상을 위한 달리기 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로 인해 주위 걱정하지 않고 훈련하고 있지만 새벽 공기는 아직 차기만 하다. 3바퀴째 접어들면서 이미에선 금새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안용덕(44)지도교수와 김종이(36) 감독도 선수들과 함께 트랙을 달린다. 안 교수는 87학번, 김감독은 95학번 조선대학교 하기부 대선배다. 대선배와 함께 뛰는 선수들의 합성은 우렁찰 수밖에 없다.

6시~7시까지 지역력 훈련이 끝나면 9시30분~11시 30분까지 웨이트트레이닝과 서킷 등 체력훈련이 실시된다. 그리

국제규격 하키장 6월 완공

고 2시30분~6시 30분까지 전술 및 기술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철없는 강행군이다. 입에서 단내나는 훈련이지만 선수들은 불평 한마디 없다. 겨울동계훈련 결과가 을 시즌 성적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웨이트과 체력훈련을 마친 선수들은

특히 올 해 동계훈련은 어느 해보다 강도가 높다.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우승이라는 지상명령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지난 1993년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74회 전국체전 하기 결승에서 상무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후 14년 만에 다시 안방에서 우승 행거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광주시로부터 10억여원을 지원받아 대운동장에 설계중인 국제규격의 하기장이 오는 6월말이면 완공된다. 안방잔

눈빛만 봐도 통하는 팀워크

차에서 전국최강 조선대하키부가 들려리를 살 수는 없다는 각오다.

지난 1971년에 창단한 조선대학교 하기부는 전국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면서도 비인기 종목으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숱한 우승과 국가대표들을 배출하면서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왔다.

지난해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 하키대표팀에 장종현(4년)을 비롯해 이승일, 김철, 흥은성, 김용배 등 조선대학교 출신 5명이 출전했으며 이승훈(3년)과 강문규(1년)가 현재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

웨이트과 체력훈련을 마친 선수들은



지난 93년 이후 14년만에 전국체전 우승컵에 도전하는 조선대 하기부원들이 기술 연마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

/광주일보 mjna@kwangju.co.kr



앞줄왼쪽부터 이주천, 김광진, 한기문, 김현철, 정을진, 박태광, 김종연, 이준화, 우측 왼쪽부터 안용복 지도교수, 이석호, 이기찬, 전용대, 장대건, 김길래, 김동현, 박영준, 공혜주, 김성현, 이용국, 김종이 감독.

/광주일보 mjna@kwangju.co.kr

김종이 감독의 지도 아래 기술훈련을 실시한다. 김종이 감독은 국가대표출신으로 지난 2005년도 조선대학교에 부임했다. 제4회 아시아 남자하키 1위, 제12회 하리모사마 아시안게임 1위등 태극마크를 달고 각종대회에서 한국의 명예를 드높였다. 선배로서 때론 친 형님처럼 친근하지만 연습때는 호랑이로 이런 호랑이가 없다.

최강 비결은 패기·정신력

김 감독은 “조선대학교 하기팀의 특징은 선수들간의 끈끈한 팀워크와 균형이다”며 “선배들이 이뤄놓은 전통을 지키려는 후배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패기와 균형의 힘 색깔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장대건(4년)주장은 “저희 팀은 고교생들이 진학 1순위로 꿈꿀 정도로 팀분위기가 좋다”며 “선·후배들이 합숙소 생활을 통해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팀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장대건 주장외에 김동현(4년)과 이승훈(4년) 등 최고참 선수들은 합숙소 생활은 물론이고 경기중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질라 치면 곧바로 파이팅을 이끌어 내며 선수들의 정신력을 극대화 시킨다.

이처럼 ‘패기’와 ‘정신력’은 조선대 하기팀의 가장 힘 커리어자 전국최강의 비결이다. 10

조선대 하기팀은 올 전국체전과 협회

장기등 2관왕을 노리고 있다. 3월에 열리는 종별대회 까지 3관왕도 가능하지만 3월대회는 목심내지 않는다.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대학생생활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안용복 지도교수의 지론때문이다. 안 교수의 이러한 지도방침 때문에 선수들은 조선대학교 운동부 중 가장 수업에 충실히 한다. 안 교수는 선수들에게 항상 졸업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주문한다.

안 교수는 “학점관리등 공부에 등한시 할 경우 졸업후 선수들의 진로가 불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에도 시간 할애를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업도 충실...을 2관왕 달진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 힘들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선수들의 답변은 망설임 없이 NO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어렵지 않다는 것이 선수들의 답변이다. 올 졸업생 5명은 상무 1명, 김해시청 1명, 학사장교 3명 등 전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안 교수는 “평소 학점관리등 학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 졸업생들이 실업팀과 상무, 학사장교 등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장 장대건〉

14년만에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다시 우승 세미머니를 펼치기 위한 20명 선수들의 스틱 움직임이 봄바람처럼 가볍다.

/최재호기자 jch@kwangju.co.kr

작은만남 큰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본사 시판부(062)222-8111

죽사랑

봉선동 우체국건너 빠로
전통건강양약족 포장배달전문
대표 나 미희
(062)433-6288

추카추카치킨

주월동 한화Apt 입구
신속배달
대표 김재진
(062)853-1020

OK공인증개사

진월동 통성고일 육교옆
성실 서비스
대표 이희숙
(062)654-1135

정관장삼남문로점

학동 그랑프리호텔옆
정관장 삼남전문점
대표 고성만
(062)232-2304

구일부동산컨설팅

무산동 인보회관 대각 및 은편
주택, 상가, APT, 토지, 임야 매매 및 임대
경매, 공매, 투자상담전문
(062)433-9189

월성국악사

계림동 대금, 금소소금, 대중기요
주3회교육, 수시모집 회비 월5만원
제작하면서 배우실분에게 기기·영도집
(017)601-4169

금난승복

양동 양동시장내
대표 안종승
(017)806-1330

단야

중흥동 남양건축포지와 한미백화점사이
대표 박창희
(062)524-9134

충무복칼국수

운남동 운남우체국옆
이구찜, 복찌 전문
대표 김영란
(062)956-7796

로얄상사웨딩3040광주지사

소촌동 금호타이어맞은편 한전앞
국제결혼자지사 및 매니저 수시모집
교사·보행설계사·마케터·관악·임무·경험자무대
(062)941-2277

파랑새볼링장

도신동 시무소 정문앞 2층
주간요일 1시~오후 8시까지 개방 1,000원 대체화인
여직원 및 이르바이트 수시모집
(062)943-0500

도산동일번지

도산동 청암APT 후문 오르통사거리
숯불구이·민창왕·생선구이·나지볶음·닭도토
조기·미운탕·조개구이·신나지·전야전문
(062)943-9288

오복가족사랑

염주동 광주은행사거리 염주사거리
생고기·목회·꽃등심·차돌배기·생선·김치·복사
갈비탕·생고기·비빔밥 전문
(062)373-7373

하남커먼레일

송촌동 평동광단번로입구 천변옆
디젤연료분사펌프·EUI·전문수리
대표 경길호
(062)943-2093

성현국제결혼상담

계림동 송선모델앞
베트남결혼 정직·친절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2)225-3888

서진타운

대인동 183-2번지
신사정 1발마리 1000원
신사정 1발마리 1000원
대표 이진원
(062)226-5510

전남장식

나주시 영산동 95-4번지
전문건설·공사업체·도장·인테리어
대표 김용일
(061)333-9367

기로산

우산동 동신고건너
당신이 불만족한 건강과 몸매를
수(수) 경락으로 느껴보세요!!
(062)531-1778

식도원

농성동 상록회관 건너편
퓨전 한정식 전문점
대표 양동순
(062)367-3399

천명산업

나주시 동수동 농공단지내
PP·PE·ABS·PC 분체 및 재생 전문업체
대표 채희연
(061)335-9753

남도회포장마차

해남읍 해남관광호텔 앞
장어탕·우리·활어·마운팅
활어를 이주재료한 가격으로 포장해드립니다
(010)9238-1878

DF동부필드마트

해남읍 고도리 401-45
한국 최초의 종합농자재전문마트
대표 윤연하
(061)536-7797~8

청해

해남읍 서동리 삼가우APT·상가내
각종비자·세교지·이구점·이구탕
이르바이트 및 일하길 어증인원수시모집
(061)537-3171

동일광고·송월디날북교전남광판

목포시 목포동 목포우체국과 명빈마트
간판·현수막·수건·상폐 공장
(061)284-7421

남총회관

순천 청진동 순천시청앞 골목
한식전문
대표 윤재종
(061)744-9736

땅끝직업소개소

해남읍 고도리 해남읍시무소 옆
건축현장·전문직·상공직·일용직·이르바이트
파출부·긴병인·점수리·힐거·민족역수시모집
(061)536-0089

조례민원부자재베팠트워크

해남군 구교리 서초동학교 앞
대표 류현
(061)536-4660